말을 잃은 시민들 … 옛 도청 등 분향 물결

■ 슬픔 뒤덮인 광주·전남

영욕 함께한 시·도민들 큰 충격

종교·시민사회계 추모대책 논의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옛 전남도청 앞에는 분향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시민들이 몰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대통령까지 서거하면서 이곳은 또 다시 고인에 대한 추모와 떠나보낸 자들의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납치·암살 시도나 사형 선고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그를 보며 시·도민은 함께 분노했으며, 3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그를 위로하고 4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은 다름아닌 시·도민이었다.

그의 대선 승리 소식을 접하고 금남로에 뛰쳐나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시·도민들은 이제 김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기 위해 슬픔을 짓누르며 분향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광주·전남과 인연이 깊었고, 민주·인권이라는 명제를 추구했던 두 명의 국가지도자가 올 들어 잇따라 서거하면서 시·도민의 충격은 더했다.

광주시청 및 전남도청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군·구청에서도 서둘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옛 전남도청 앞 등 광주·전남의 상징적 장소 등에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이 하나 둘 줄을 잇고 있다.

강민규(43·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국가의 큰 어른이 가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갑갑하다"며 "어려운 시기, 국가의 기틀을 잡아주셔야 할 분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이름을 딴 '김대중 컨벤션센터' 내 김대중 홀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에 마련된 '김대중 홀'에는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흔적을 알 수 있는 기념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김 전대통령의 서거를 듣고 그의 일생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 단위 조문객들이 찾고 있다. 센터 측은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윤장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은 "그 분이 살아오신 과정이 곧 이 땅의 민주화이며, 한국 사회의 현실이 민주화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더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앞으로 김 전대통령이라는 거목이 사라진 구덩이를 호남인들이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목포역, 광주 터미널, 광주역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TV 주변에 삼삼오오 몰려들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회고했으며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종교·시민사회계에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조비오 신부는 "고령이셨지만 더 사셔서 국가적 난관과 정치적 어려움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했는데 아쉽다"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창무 교구장도 18일 추도사를 통해 "김 전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인권향상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셨다"면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은 "여야 대립과 경제 위기, 노사 갈등 등 꽉 막힌 가운데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큰 어른이 돌아가셔서 가슴이 미어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터미널과 공항은 물론 식당과 찜질방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마다 김 전 대통령과의 작거나 큰 인연들을 이야기하며 그를 추억했으며, 시민들은 TV와 신문, 인터넷을 통해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되새기며 고인이 된 그를 추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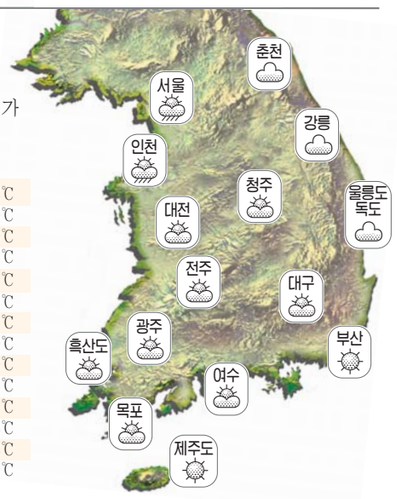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55분 / 해짐 19시 17분 / 달뜸 04시 09분 / 달짐 18시 24분

분향소 가는길 '무더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구름 많음	24/32℃
목 포	구름 많음	24/30℃
여 수	구름 많음	24/29℃
완 도	구름 많음	24/31℃
구 례	구름 많음	23/31℃
해 남	구름 많음	24/31℃
장 흥	구름 많음	24/31℃
고 흥	구름 많음	24/30℃
순 천	구름 많음	23/30℃
영 광	구름 많음	23/31℃
진 도	구름 많음	25/31℃
전 주	구름 많음	24/32℃
남 원	구름 많음	23/32℃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먼바다	남~남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매우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1:10 / 13:10	06:37 / 18:36
여수	08:07 / 20:42	02:08 / 14: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날 씨						
최저/최고	24/31	24/29	23/31	22/30	24/31	22/31

■ 이모저모

DJ 모교 기념식수도 고사 운명

인터넷엔 온통 검은리본·국화꽃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안군 하의도 모교인 하의초등학교에 기념식수한 나무가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나무는 지난 4월 김 전 대통령이 하의초교 정문 옆 정원에 심은 은목서(銀木犀)로, 심은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잎도 자라지 않은 채 누렇게 말라가고 있어 '김 전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은목서는 사계절 잎이 파란 상록수로, 자생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김 전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잘자라지 않는 것을 이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박홍수(87)옹은 서거 소식을 듣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라며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였다"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일본인 교장의 횡포에 맞서 '연판장'을 돌렸던 일이 엊그제 같다"라며 눈시울.

○…목포에서 옥정한정식을 운영하는 손성애(여·56)씨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김 전 대통령이 2006년 10월 하의도 방문때 이 곳에서 홍어삼합과 낙지, 간재미 초무침 등을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삽시간에 애도의 물결로 뒤덮였다.

누리꾼들은 각 포털에 올라온 김 전 대통령의 서거 기사에 검은 리본을 앞에 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을 쏟아내는 등 숙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비속어를 동반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밤 9시께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청사 1층 로비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목포와 순천 등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도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목포에서는 이날 오후 8시 목포역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돼 밤 늦은 시간까지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또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전남제일고에는 19일 오전 9시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순천도 이날 팔마체육관에 분향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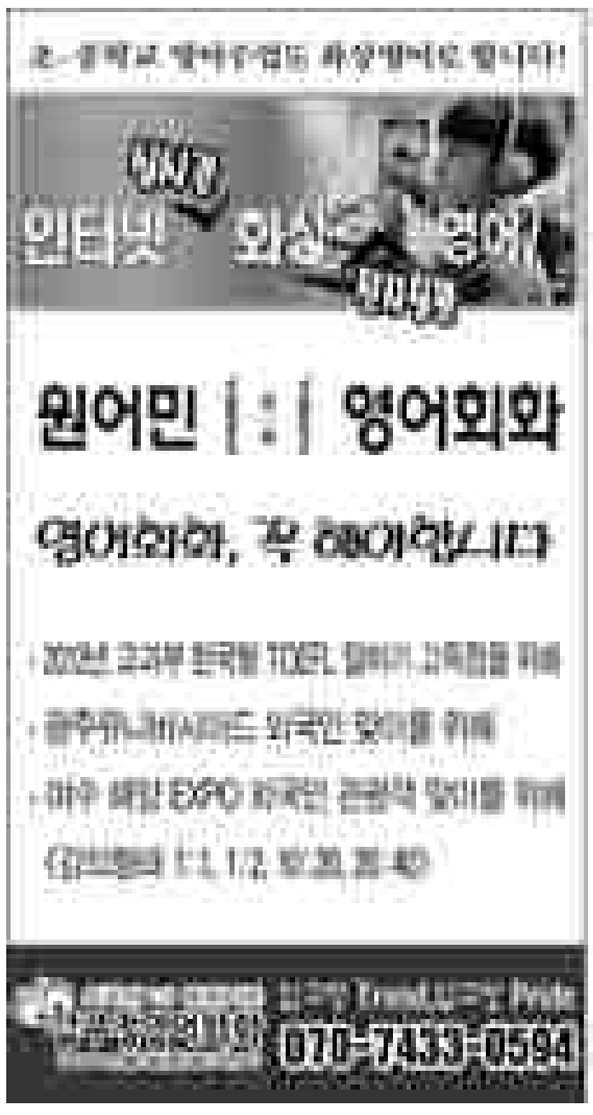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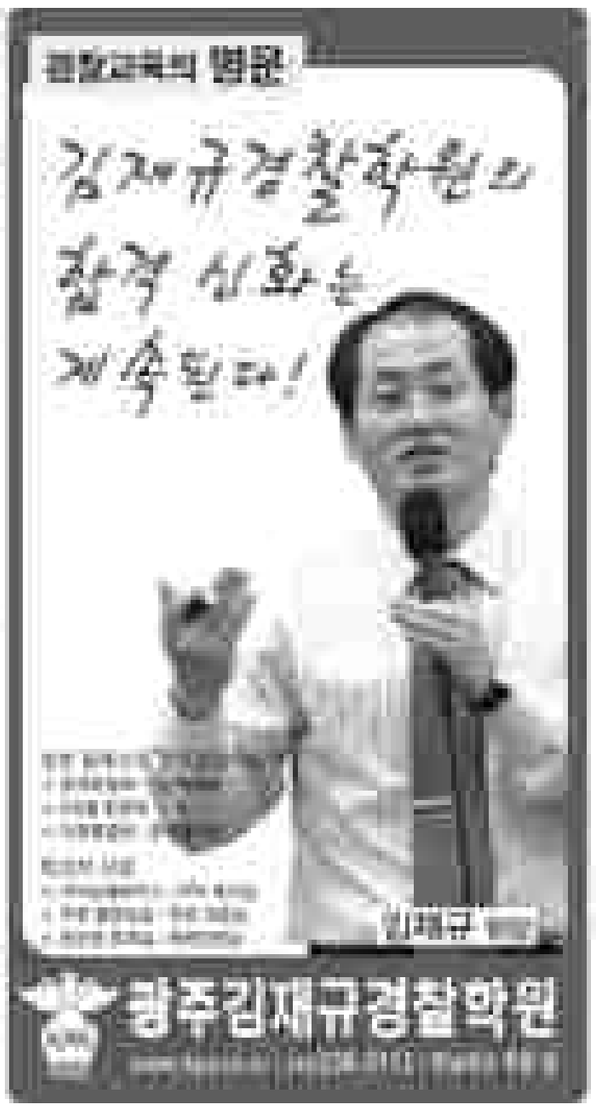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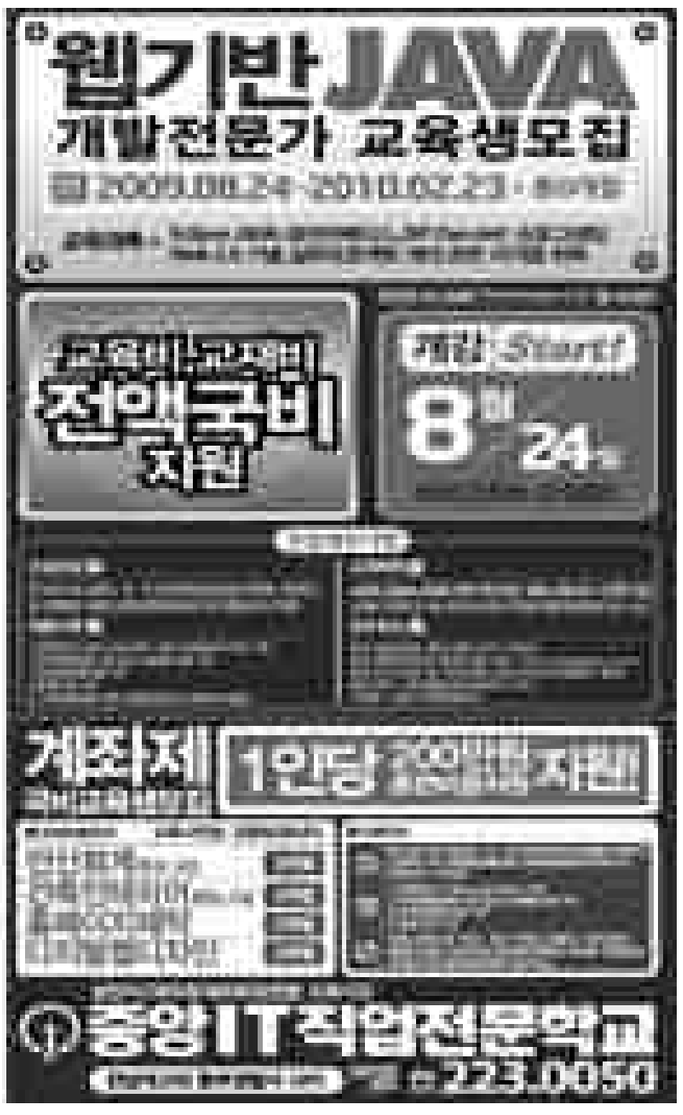
대학가에도 분향소 설치가 잇따랐다. 전남대가 이날 오후 제1학생회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 광주·전남지역 40여개 대학에 분향소 설치가 이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상고 때 일본인 제치고 급장

■ 학적부로 본 DJ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 김대중 홀에는 김 전 대통령의 학창 시절 학적부 사본이 보관돼 있다. 이를 보면 그는 어린 시절 우수한 성적, 뛰어난 웅변 실력 등을 갖췄으며,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군 하의보통학교에서 4학년 때 목포 북교초등학교로 전학한 김 전 대통령은 전학하자마자 1, 2등을 다투다 전교생 72명 가운데 1등으로 졸업했다. 1939년 4월 5일 일제 강점기 때 목포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학생의 절반가량이 일본인이었지만, 일본인 담임교사가 급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뛰어난 성적과 통솔력을 보였다. 1학년 때는 161명 가운데 1등이었고, 종합생활기록란엔 '담백, 치밀, 활발, 이해력, 사고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적혀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